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윤해동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 I. 머리말
- II.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
- III. 이승만과 냉전자유주의
- IV. 박정희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V. 맺음말

I. 머리말

주요한 정치이데올로기가 대개 그렇듯이 자유주의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다. 자유주의만큼 논란이 많고 쓰임새가 다양한 이데올로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쓰이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용법의 다양성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 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의 정통성을 지닌 이념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보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자유주의는 자유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이념으로서, 현실의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에 우호적인 세력 혹은 이념으로 비판된다.² 이처럼 한국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수해야 할 정통이데올로기와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할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한국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 자유주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자가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주의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이런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자유주의가 객관적인 분석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왔던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혹은 부정적인 것이든, 자유주의는 한국의 주요한 근대 정치이데올로기로 기능

* 투고: 2017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20일, 게재 확정: 2018년 2월 28일

* 본 논문은 2016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1 북겨울, 2016,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북앤피플, 6~23쪽.

2 손호철, 2010,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지역과 전망』 22호.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구별되는 정치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결합한 이론적 복합물로서 주로 정부의 형태를 규정하는 이론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³

이런 차원에서 해방 후 냉전기 자유주의의 변형태 곧 ‘냉전자유주의’를 통해 한국 현대정치 of 한 면모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승만이 자유주의자였던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왔지만,⁴ 이승만이 자유주의 세례를 일찍부터 거쳤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⁵ 따라서 이승만정권이 출범할 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냉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인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냉전자유주의를 매개로 해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⁶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냉전자유주의는 쇠퇴하는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었던바, 그것이 한반도에서 이승만을 통해 드러날 때 과연 어떤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자유주의를 냉전자유주의로 이해할 때,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통해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남북분단이 고정되고 냉전이 정치화되면서, 박정희정권기 한국의 정치제도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는 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전면화하였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박정희의 탈자유주

3 강정인, 1997,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61~162쪽.

4 예를 들어 서중석,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이 책의 저자는 일민주의를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이승만의 정신구조가 전 근대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5 남정욱 외, 2016, 『시간을 달리는 남자』, 백년동안 참조.

6 이승만의 자유주의를 ‘반공적’ 자유주의로 평가한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양승태·전재호, 2007,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21집.

의적인 이데올로기 전환이 가져온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던가?⁷ 이를 냉전자유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탈자유주의적이거나 반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 사상의 속성을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철학적 논의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자유주의 수용과 전개에 대한 실증적이고 역사주의적인 접근을 수행한 연구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중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에 관한 연구⁸와 자유주의의 양면성을 토대로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⁹가 돋보인다. 또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추적한 연구는 많지만, 그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탐색한 연구 역시 이제 출발점에 선 정도이다.¹⁰

이 글은 냉전자유주의의 변화를 통해 1950~1960년대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 변화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에 수입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시적 성격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자유주의는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런 점에서 식민주의와 결합하거나 식민주의적 성격을 표출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에 수용될 때 그것이 드러내는 성격을 냉정하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기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 그들이 자유주의와 맺었던 관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단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전개되던 냉전의 변화양상이며, 다른

7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냉전자유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의 논의가 참조가 된다. 강정인·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1호.

8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9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후마니타스.

10 양승태·전재호, 2007, 앞의 글;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참조.

하나는 당시 구미지역 특히 미국과 독일의 ‘냉전자유주의’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맞고 있던 관련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재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은 한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전환’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학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혹은 논의에 비해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한국의 자유주의는 긍정, 부정의 양쪽 진영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상실한 옹호 혹은 거부 태도로 인하여 깊이 상처받았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명제가 커다란 주목을 끌었으나, 아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나 적부 여부 나아가 그것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맺는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정치적 근대성의 핵심 가운데 하나를 자유주의가 구성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지만, 자유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아무런 합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II.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

자유주의는 붕괴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인가?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이후(After Liberalism)’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가 가진 유용성과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자유주의도 붕괴되었다고 진단하고, 자유주의 이후를 사유해야 한다고 권유한다.¹¹ 그러나 최장집은 한국의 정치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주장한

11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참조.

다.¹² 한쪽에서는 붕괴되었다고 진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현실에서 필요하다 주장하는 이 이데올로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붕괴를 진단하는 사람은 미국 출신의 세계체제론자이고,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학자는 한국 출신의 정치학자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에 자유주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대개의 경우 양면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예컨대 자유주의가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¹³ 그 이면에는 자유주의가 가진 보수성을 경계하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해도 좋다. 혹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진보적인 측면을 가진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쉬이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계하기도 한다.¹⁴ 또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표방되기도 하지만 저항 이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¹⁵ 한편 자유주의를 우파 자유주의와 좌파 자유주의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우파 자유주의는 헌법적 보수주의와 그리고 좌파 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¹⁶ 자유주의가 항상 자유주의‘들’로 존재해왔다는 지적은¹⁷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자유주의 연구가 쉬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까다로운 주제로 악명을 떨쳐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는 17세기 서유럽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후 19세기까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였다.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인데, 그

12 최장집 외, 2017,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참조.

13 최태욱 엮음, 201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참조.

14 이근식, 2011,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최태욱 엮음, 위의 책, 31~65쪽 참조.

15 문지영, 2011, 앞의 책 참조.

16 민경국, 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1~54쪽.

17 Alan Ryan, 1999, "Liberalism",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 eds.,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ress, p. 291; 문지영, 2011, 앞의 책, 12~21쪽 재인용.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핵심은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¹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토대는 인간과 세계의 분리 그리고 개인의 고립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이상적 개인은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자신이 행위의 근원이 된다. 이런 자기완결의 개념에서 자기소유의 개념이 발전한다. 인간의 삶은 자기자신에게 속한다는 17세기 이후의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중심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로크에게 이르러 자신이 소유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이 표면화되었고, 자신의 행동과 생업의 소유권은 물질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¹⁹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초기 부르주아가 주체가 된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운동과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경제와 결합하면서 전형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²⁰

그러나 19세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를 보호하는 개인주의적 전제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고, 정치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와²¹ 자유주의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려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현대적 자유주의’²²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20세기 자유주의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의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18 앤서니 아블러스터(Anthony Arblaster),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19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의 책, 49~92쪽.

20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의 책, 193~546쪽.

21 자유민주주의의 등장과 성격에 대해서는 강정인, 1997, 앞의 책 참조.

22 황경식, 2005,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철학연구』 71.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자유주의가 결합하는 방식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 관련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체제론의 대표적 이론가 월러스틴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월러스틴은 19세기 이후 세계체제를 끌고 간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1789~1848년까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헤게모니투쟁을 벌인 시기였고, 1848~1914년(혹은 1917년)까지는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도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1917~1968년까지의 시기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기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 변화함으로써 어쩌면 자유주의가 신격화하였다고 주장한다.²³ 요컨대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그리고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로 군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20세기 들어 자유주의가 무대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지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 특히 헤게모니 국가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현저하였다.²⁴ 19세기 영국의 이른바 ‘자유무역 제국주의’²⁵와 20세기 미국의 근대화이론 혹은 인권을 내세운 제국주의적 행태²⁶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속성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그중에서도 소유적 개인주의²⁷와 관련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상적 개인이 갖

23 이매뉴엘 월러스틴, 강문구 역, 1996, 앞의 책, 103~175쪽.

24 장미셀 카트르프앵, 김수진 역, 2015, 『제국의 충돌』, 미래의 창, 292~293쪽.

25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대한 고전적 저작으로 毛利健三, 1978, 『自由貿易帝國主義: イギリス産業資本の世界展開』,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26 대표적 성과로 권용립,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참조.

27 C. B. 맥퍼슨, 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김남두 편, 1993, 『재산권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참조.

는 자기소유의 속성은 물질적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소유적 개인주의로 발전하였다. 17세기에 활동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로크는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지지하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식민주의는 이렇게 출발하였다.²⁸

자유주의는 18세기 이후 인종주의와 결합하고, 백인들의 ‘문명화사명’을 지지하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개척자로 알려진 밀의 말에 주목해보자. 밀은 모든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굳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이 자유주의 이론은 성숙한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 즉 “인종 전체가 미성년의 단계에 있는 후진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진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야만인을 대하는 통치의 정당한 방법이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정당화되는 수단”이라고 강변한다.²⁹

이런 인종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가 결합하여 이른바 ‘주인 없는 땅(no man’s land)’에 대한 수사 곧 식민지 영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절대적 논리가 부상하게 된다. 제국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열등민족을 문명화하기 위해서 식민화사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필요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종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였던 것이다.³⁰

이제 비서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의 행로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본 바 자유주의 고유의 식민주의적 성격이 비서구사회에 수용될 때 어떤 양상을 띠

28 허재훈, 2014, 「식민주의의 기초: 존 로크와 아메리카, 인디헤나의 수난사」, 『철학연구』 130집. 존 로크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건설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법과 자유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9 존 스튜어트 밀, 김형철 역, 1992, 『자유론』, 서광사, 15~38쪽.

30 질 망스롱(Gilles Manceron), 우무상 역, 2013, 『프랑스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게 될 것인가? 비서구사회의 자유주의는 식민주의적 속성이 발현될 때에는 곧바로 지배이데올로기로 전환하게 될 것이지만, 반식민주의와 비판적이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다. 비서구사회의 자유주의 나아가 식민지의 자유주의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이러한 ‘모순적 양면성’이었다. 이제 한국에 수용된 자유주의의 경험을 통해 비서구사회 자유주의의 행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 자유주의 수용의 특성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해왔다. 첫째, 자유주의적 제도 혹은 정체(政體)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 둘째, 민권과 아울러 국권에 대한 강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 셋째, 서구 자유주의의 다양한 사조를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¹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핵심적 가치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이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에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하에서 자유주의는 제국주의와 타협하거나 혹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두 가지 길로 나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전자는 자유주의 가치를 외부적 강제의 부재로 볼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후자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주권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할 경우에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이처럼 식민지 자유주의는 부르주아의 관용 혹은 시혜를 강조함으로써 타협적 길을 걷거나, 국민국가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저항적 민족주의로 굴

31 문지영, 2011, 앞의 책, 45~54쪽; 김도형, 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4년 여름호; 김석근, 2011,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동양정치사상사』 10-1; 노상균, 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7.

절하게 될 터였다.³²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었지만, 양자는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향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에서 분화하여 자신의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³³ 해방 후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 헌법 제정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³⁴ 하지만 그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유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체제수호의 공식 이념이자 정치언어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의 슬로건으로 기능했던 자유주의가 실제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냉전-반공이데올로기 혹은 부르주아지들의 이념으로 이해하였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32 식민지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개 자유주의가 가진 이런 양면성을 강조한다. 문지영, 2011, 앞의 책, 55~72쪽; 박찬승, 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박만규, 1999, 「안창호 민족주의에서의 자유주의」, 『한국사학』 17; 전재호, 2004, 「자강론과 자유주의-식민지초기(1910년-1920년대 초) 신지식층의 자유주의관」, 『정치사상연구』 10-2; 정용화, 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1; 정미량, 2007,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 연구-『학지광』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4집; 채오병, 2012, 「제국의 사이클과 지역 정치문화-전간기 동아일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와역사』 94; 이평전, 2013, 「근대 자유주의의 문학적 수용양상 연구-신채호, 이광수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담론』 75 등.

33 문지영, 2011, 앞의 책, 73~101쪽.

34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그것이 갖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후마니타스.

평가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³⁵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이원화되고 파편화된 수용 구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식민지에 수용될 때 나타나는 굴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Ⅲ. 이승만과 냉전자유주의

1. ‘냉전의 군사화’ 그리고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유주의를 규정한 가장 강력한 현실은 ‘냉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모든 방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분야 곧 군사분야에서만 그런 우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핵무기의 우위조차 1949년이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암묵적 거래 곧 냉전이었다. 미소의 군사적 배치선을 따라 세계는 양대세력권으로 분할되었다. 또 그 영역 내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분할선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암묵의 합의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 전쟁은 붕괴되기까지 진영의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으로 유지되었다.³⁶ 한반도에는 1940년대 후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제국이 붕괴된 이후 식민지기의 트랜스내셔널한 연계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동아시아는 이제 냉전의 대분단선을 따라서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었다.³⁷

35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 엮음, 앞의 책, 66~107쪽.

36 이매뉴엘 월러스틴 외, 2014,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21~74쪽.

37 이삼성, 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55호.

하지만 ‘열전’ 역시 식민지의 유산을 안고 진영의 분할선 안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다.³⁸ 한반도는 처음에는 냉전의 분할선을 최전방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전쟁을 통하여 냉전에도 ‘전쟁을 통한’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NSC-68을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였다. 이 문서는 군사력에 GDP의 20%까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한반도에서의 열전도 미국 냉전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곧 ‘냉전의 군사화’였는데, 미국은 지역 동맹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략무기 경쟁에 몰입하였다.³⁹

1950년대의 한반도는 열전의 잔여공간으로서, 이 시기에 공간이 재확정된 남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결여로 인하여 고통받고 갈등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것이 이승만의 변형된 자유주의 곧 냉전자유주의가 생존하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냉전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세기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확실히 쇠퇴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었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냉전자유주의는 쇠퇴기의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이데올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부활’한 자유주의의 특징은 ‘반공주의’와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냉전자유주의’라고 통칭해왔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의 견을 표명해왔지만, 특히 20세기 들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은 통렬한 것이었다.⁴⁰

냉전시기에는 반공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자유주의의 주요한 성격을 구성하

38 권현익, 이한중 역, 2013, 『또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 민음사. 권현익이 주로 식민지배의 유산을 둘러싸고 열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9 이근욱, 2012, 『냉전』, 서강대학교출판부, 27~85쪽;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역,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67~110쪽; 존 루이스 개디스, 장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예코리브르, 75~168쪽 참조.

40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게 됨으로써 자유주의의 더 근본적인 원리들이 무시되거나 희생될 정도였다. 언론의 자유와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들은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원리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가치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나아가 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메카시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렬한 반공주의를 장착한 냉전자유주의는 비자유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반공주의라면 수용할 수 있었고, 그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냉전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고 반자유주의 곧 자유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배반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승인한 배반이었다.⁴¹

이 시기 냉전자유주의자들은 195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월간지 『인카운터(Incounter)』와 그를 잇는 각종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하였으며,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들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 나갔다.⁴² 냉전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자유주의라는 특징을 지녔으며, ‘전체주의’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의 지적인 기원이 좌파 유토피아주의로 간주되었으므로 세속적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거나 혹은 그 종언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냉전자유주의는 자신들이 비이데올로기적이거나 심지어 반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의 급진주의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냉전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민주주의 개념과 이론을 전체적으로 새로 규정해나가는 것에 모아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주의적 재해석은 이렇

41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와 같음.

42 냉전자유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프랜시스 스톤너 손더스 (Frances Stonor Saunders), 유광태·임채원 역, 2016, 『문화적 냉전-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게 해서 새로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³

최근 미국 학계에서는 1950년대 미국에서 뉴딜개혁 정책은 거의 부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딜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 반공주의는 오히려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냉전 정책이 실업정책, 기업규제, 경제발전과 인권 등의 자유주의적 목표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⁴ 마셜의 냉전정책은 경제발전과 반공주의가 결합한 것으로서, ‘뉴딜 자유주의의 전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위기상황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정당화하였으며,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였다. 요컨대 냉전은 전후 자유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었다. 집중화된 국가권력과 현대화된 자본주의가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어젠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수용되었다. 게다가 냉전이 보수주의 운동을 분할하고 약화시킴으로써 1950년대 내내 보수주의는 방어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1950년대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도 뉴딜자유주의 혹은 냉전자유주의가 미국 정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⁴⁵

2. 이승만의 자유주의: ‘냉전적 반공자유주의’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그동안 자유주의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대신 일민주의가 이승만의 정치이념으로 간주되어 관심을 끌어들었다. 이승만정권 초

43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44 Jennifer A. Delton, 2002, *Making Minnesota Liberal: Civil Righ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nifer A. Delton, 2009, *Racial Integration in Corporate America, 194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Jennifer A. Delton, 2013, *Rethinking the 1950s: How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Made American Liber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부터 권력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일민주의는, ‘공식적으로’는 이승만이 정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승만이 처음으로 창안하고 제창했으며,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몇몇 이데올로그들이 체계화하였다고 인정되었던 것이다.⁴⁶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민주의가 안호상이 창안하고 입안한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⁴⁷ 일민주의가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는 협소한 해석을 넘어, 철학자 안호상이 자신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구축한 자생적 실천철학의 단초라는 방식으로, 철학적 성과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일민주의는 안호상 특유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지극히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다원론적 입장에서 있던 일민주의 이념⁵⁰을 잠시 동안이나마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일까? 안호상이 실천철학의 체계로 만들어갔던 일민주의(‘한백성주의’)와는 달리, 1949년 4월경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일종의 국시(國是)와 같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안보위기에 직면한 이승만이 체계적으로 반공 체제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1950년 4~5월 사이에 이범석, 안호상 등 이른바 ‘족청계’가 이승만정권에서 실각함으로써 완

46 김혜수, 1995,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 김수자, 2004,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 22; 서중석, 2005, 앞의 책; 김석수, 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돌베개.

47 선우현, 2015, 「일민주의 철학의 정립자, 이승만인가 안호상인가」, 『시대와 철학』 73호. 1950년 출간된 안호상의 저작 『일민주의 본바탕』이 실은 1949년 9월에 출간된 『일민주의 개술』(이승만)에 앞서 집필된 것이라는 안호상 본인의 회고가 설득력이 있다.

48 선우현, 2015, 위의 글.

49 이병수, 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 19-2.

50 강정인·하상복, 2013,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환경·미래』 10호.

전히 종결되고 말았다.⁵¹

이승만은 족청계열 정치인들이 내세우고 있던 일민주의를 자신의 정권유지와 반공체제 구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승만정권이 그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뉴라이트 세력과 함께 우파 수정주의적 경향의 근현대사 연구가 부상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중시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國父)로 추앙하는 논의가 무성하게 전개되었다.⁵² 하지만 정작 체계적인 이승만 연구 그중에서도 이승만의 사상세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³

이승만의 초기사상에 대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많은 조명이 가해졌는데, 그것은 대체로 그의 자유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초기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민권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민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또 자연법적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헌법정치에 입각한 공화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적극적인 통상무역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⁵⁴ 식민지기의 이승만은 이런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반공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더하고 있었다.⁵⁵

51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225~271쪽.

52 대표적으로 유영익 편, 2000, 『이승만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최상오 외,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송복 외, 2011,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53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고정휴, 1986,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109; 주진오, 1996,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 유영익, 1996,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김학준, 2000,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54 하유식, 2000,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 『지역과 역사』 6호.

55 오영섭, 2012, 「1910-1920년대 『태평양잡지』에 나타난 이승만의 정치사상」, 『한

자유주의를 기준으로 이승만의 정치이념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지만,⁵⁶ 냉전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깊다. 이승만이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 1950년대 미국의 뉴딜자유주의 혹은 냉전자유주의와 소통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이념은 쉽사리 반공주의와 결합하였으며, 미국의 제3세계 독재정권 지원에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를 크게 다음 네 가지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옹호, 둘째,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 셋째,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립항으로서의 반공주의(혹은 반소주의), 넷째,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먼저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식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보자. 이승만은 ‘건국 기초에 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한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 목하의 사소한 장애로 인하여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 방침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할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유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국민족운동사연구』 70.

56 양승태·전재호, 2007, 앞의 논문 참조.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1. 인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 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⁵⁷

먼저,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제도만이 인민의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권과 개인의 자유는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민족이 스스로 획득한 산물이므로, 언론·집회·종교·사상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승만은 「식사」를 진행하는 중에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언표상으로는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임군이 가진 권리를 남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만들어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 행사하게 만들고 정부관리는 다 내각원으로 대통령 행정기관의 모든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법률하에 동등권리를 가지게 한 것이다. ……”⁵⁸ 이와 아울러 이승만에게는 3·1운동조차도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5년 3·1절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은 독립만세 10주년이요 3·1운동 36회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57 이승만, 1976,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경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1948. 8. 15)」,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565~570쪽.

58 이승만, 1956, 「국무총리 문제에 관하여(1954. 6. 18)」,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공보실, 37~38쪽.

1919년에 우리 애국선현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반 잊어버린 가치 된 자유주의를 부활시키기로 착수한 공헌을 축하하자는 것입니다. 선현들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찰국가의 압제 하에 살았으며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담대히 성명했던 것입니다. ……”⁵⁹

둘째, 이승만의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이승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유보조항을 달므로써 국가의 권리 혹은 애국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48년 7월에 진행된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중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력이 필경 정객과 정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할 것이니 ……”⁶⁰ 이처럼 이승만은 국민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권리를 유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어 정부수립 선포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를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권의 자유를 할 담보(擔保)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전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⁶¹ 이승만에게 자유권은 언제나 이처럼 유보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반공주의조차도 애국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공산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임식에서 천명하였다.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 우리는 공산당

59 이승만, 1956, 「제36회 3·1절 기념사(1955. 3. 1)」, 위의 책, 66~71쪽.

60 이승만, 1976, 「대통령 취임사(1948. 7. 24)」, 우남실록편찬회, 앞의 책, 551~544쪽.

61 이승만, 1976,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겸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우남실록편찬회, 위의 책, 565~570쪽.

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 하루 바삐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권리를 다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⁶²

얼마 전부터 뉴라이트 세력이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칭송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다. 자유주의가 처음부터 국가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친연성을 가진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유보하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이승만이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뉴라이트의 현대사 인식이 맞닿아 있는 점에는 새삼 주목을 요한다.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주의’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셋째,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어떤 것이었던가? 먼저 그는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전민족의 동화(同和)를 도모하나니 ……”⁶³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가 계급 간의 투쟁을 꾀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어 이것은 세계정복이라는 그들의 목표와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산주의는 전세계를 통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정복인 것이다. 그들의 모든 국내의 정책은 오로지 이 목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⁶⁴ 이어서 미국의 평화공존정책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반공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민국정부는 자초(自初)로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거나 괴뢰정부는 되지 안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는 중이며 우리 한인들이 다 많은 목숨을 희생하였고 또 지금도 어디까지나 자유권을 보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죽든지 양단간 규정을 낼 결심이니 미국이 공존주의를 주장하게 될지라도 우리로서는 자유독립의 권리를 위하여

62 이승만, 1976, 앞의 「대통령 취임사(1948. 7. 24)」.

63 이승만, 1976, 앞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겸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64 이승만, 1956, 「I. N. S 통신사에 제공한 성명서(1954. 5. 21)」, 앞의 책, 33~36쪽.

싸워죽기로 결심”⁶⁵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이 반공주의에서 세계의 쇼윈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이목에 한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당했으되 굴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침략을 당할 때에 국방군이라는 준비가 없었으되 우리가 전적으로 항거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 전체의 정신과 용감력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⁶⁶ 이처럼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미국의 평화공존 주장 등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냉전과 반공의 자랑스런 전시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먼저 개인의 자유주의적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한다. “지금부터는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평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 불패(不悞)해야만 될 것입니다. ……”⁶⁸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자유로운 국제통상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민국(民國)에 문호가 열려서 통상 각국과 상업상 권리를 서로 교환해야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에 발전되고 따라서 세계경제력을 모아다

65 이승만, 1956, 「독립자유 정신을 선양하라(1954. 12. 8), 위의 책, 53~54쪽.

66 이승만, 1956, 「제36회 3·1절 기념사(1955. 3. 1), 위의 책, 66~71쪽.

67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해방 후에 국가의 특혜를 누리는 ‘국가적 기독교’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분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중철, 2011,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최상오 외, 앞의 책, 157~190쪽 참조.

68 이승만, 1976, 앞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겸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가 우리나라의 실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 절대로 외국인의 상권을 막고 우리의 상권만 세운다는 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일도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재정가(財政家)들은 오직 우리 민족의 경제력을 보호해야만 자기들도 번창하고 또 민족들도 복리를 누리게 될 것이니 ……”⁶⁹ 이어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 “지금은 서양자본가의 정책이 다 변해서 세계 빈곤한 나라들에게 자기의 물자와 기계와 자본을 보는 나라가 많을수록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많이 팔 수 있고 또 미국의 모든 기계장이 다시 번영되고 노동자의 생활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이전에는 상업이 열리어서 남의 재정을 끌어가기로만 주장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서로 이해상반케 만들어 평균한 이익을 다같이 누리자는 것이 세계경제 대중들의 큰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이승만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을 자유주의적 경제적 기본권에서 확인하였으며,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⁷¹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냉전자유주의 이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게 자유주의적 기본권과 인권은 대개 유보적인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유보는 대개 국가권력 혹은 국가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에게 애국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다. 애국주의는 반공주의로 이어졌는데,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매국적인 가치 혹은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한국은 기꺼이 자유세계의 반공전시장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69 이승만, 1956, 「大小資本家を 糾合하여 國家經濟를 확장하라(1949. 12. 10)」, 앞의 책, 19~20쪽.

70 이승만, 1956, 「외국자본을 환영(1950. 2. 17)」, 앞의 책, 30~31쪽.

71 최상오는 이승만이 평등주의 이념과 자립경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고 보지만, 이는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부차적인 것이었을 따름이다. 최상오, 2011, 「이승만의 경제구상」, 최상오 외, 앞의 책, 65~122쪽.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로 인해 자유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잠식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자유로운 통상과 무역을 통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기대는 포기되지 않았다.

IV. 박정희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1. ‘냉전의 정치화’와 ‘질서자유주의’의 영향

1950년대 냉전이 군사화되면서 핵무기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또 냉전전략이 핵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전쟁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소련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다양화하게 되면서,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봉쇄하는 전략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수단이 1963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과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전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냉전은 지나친 군사적 경쟁을 자제하면서 정치적인 경쟁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⁷²

이런 ‘냉전의 정치화’ 과정에 대해서는, 냉전이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은 경쟁이었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훨씬 취약했음에도 양국은 대등한 적수인 것처럼 가정하고 경쟁했다는 것이다. 냉전시기 소련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음에도, 이것이 미국과 경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등한 것처럼 싸운 비대등

72 이근욱, 2012, 앞의 책, 53~85쪽; 베르트 슈퇴버, 2008, 앞의 책, 137~190쪽; 존 루이스 개디스, 2010, 앞의 책, 169~266쪽 참조.

한 경쟁이 불평등을 배가시켰으며, 이런 점에서 냉전은 ‘사회주의에 대한 오랜 형벌’이었다는 것이다.⁷³

1950년대 반진영논리를 내세운 비동맹운동이 대두하고, 구미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과 ‘근대화론’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원조정책은 소련과 중국을 ‘원조게임’ 속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이는 더욱더 세계적 차원의 냉전을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⁷⁴ 물론 ‘제3세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열전이 이어지고 미국과 소련 역시 이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쟁이 국지화됨으로써 대규모 전쟁은 회피되고 있었다. 이로써 냉전경쟁이 완화되고 ‘데탕트’가 도래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이 전략핵무기 제한에 합의함으로써 데탕트가 현실화되었다.⁷⁵

냉전의 정치화는 새로운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60년대 초반 ‘한일국교정상화’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하고, NEATO(Nor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북아조약기구) 설립 움직임을 계기로 지역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경쟁이 완화되고 냉전이 경제적 차원의 경쟁으로 차츰 이전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역시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정치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1960년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 이리라.

한국에서 1960년대 냉전의 정치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질서자유주

73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 박소현 역, 2015, 『갈색의 세계사(The Darker Nations)』, 뿌리와이파리, 21~37쪽. 위의 지적은 스웨덴의 사회학자 요란 테른보른의 1968년 논문을 비자이 프라샤드가 인용한 것이다. 블라디슬라프 M. 주보르크, 김남섭 역, 2016, 『실패한 제국』, 아카넷 참조.

74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2015, 위의 책, 98~114쪽.

75 이근욱, 2012, 앞의 책, 89~115쪽.

의는 전후 독일의 경제를 도약시킨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한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질서자유주의를 냉전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 주도한 반공주의적 냉전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 것이었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 가운데서도 경제적 측면의 질서를 유독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프라이부르크학과 경제학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후 재무상과 연방총리를 지내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에르하르트가 질서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였다.⁷⁶

프라이부르크학과 경제학의 바탕에는 칸트의 윤리학이 깔려 있는데, 인간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소련식 공산주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다. 첫째,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안정적인 화폐가 있어야 하며 독립된 중앙은행 곧 연방은행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에 방해가 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감시자 역할을 하는 당국 곧 연방카르텔청이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 셋째, 사유재산이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이 원칙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조에 반영되었다. 첫째, 기업은 직원의 복지와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공동경영의 개념, 둘째, 새로운 연방국가는 보충성의 원칙(최소단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

76 황준성, 2011,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출판국 참조.

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⁷⁷

이처럼 독일의 전후 질서자유주의는 에르하르트트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과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는 아데나워의 경제성장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우위를 통한 (냉전)정책’을 표방한 아데나워의 전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박정희의 성장정책에서 바로 이러한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의 그림자를 짙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4·19혁명이 자유민주주의의 효과 혹은 산물이라는 점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가 독재로 이어졌다면, 또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 4·19혁명이었던 것이다. 4·19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두 주역 장면과 윤보선의 정치이념이 자유주의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해두어야 한다. 장면과 윤보선의 자유주의 역시 냉전자유주의 이념의 연속성 위에 놓여 있었다. 장면과 윤보선은 모두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제일주의’ 노선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각기 천주교와 개신교를 배경으로 철저한 반공주의를 체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⁷⁸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은 많은 측면에서 단절성과 아울러 연속성도 가

77 장미셀 카르트푸앵, 2015, 앞의 책, 175~180쪽.

78 장면에 대해서는 조광 외, 2003, 『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허동현, 2005, 『장면의 정치사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참조. 윤보선에 대해서는 김명구, 2011, 『해위 윤보선』, 고려대학교출판부; 해위학술연구원 엮음, 2015,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참조.

진다. 가장 강한 단절성 가운데 하나를 바로 ‘탈자유주의적 전환’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한편으로 냉전에 더욱 강하게 속박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의 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2년 이상 군정이 지속되는 동안 박정희는 ‘혁명기의 민주주의’ 곧 ‘행정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유보해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⁷⁹

군정시기 박정희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기본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재해석을 가한다. 그는 국내외의 위협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유’를 누릴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게 자유를 누릴 우선적인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이 된다. 개인은 그가 소속된 집단이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자신의 사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⁸⁰ 박정희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민족의 이익과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에 부합되도록 조절하고 행사하여야 하며,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⁸¹ 덧붙여서 자유와 권리라는 관념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방종이나 개인만을 위한 것으로 오용되거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남용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점을 경고하고 있다.⁸² 이는 어느 정도 비자유주의적인 태도로 읽을 수 있겠거니와, 이를 곧바로 반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⁸³ 박정희는

79 자유화(liberation)라는 개념을 자유주의 요소를 현실에 적용하여 억압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화로,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화로 해석하는 것은 개념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될 것이다. 복거일, 2016, 앞의 책, 136~146쪽.

80 박정희, 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41쪽.

81 박정희, 1973, 「(세계인권선언 제14주년 기념식) 기념사(1962. 12. 10)」, 『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1권, 대통령비서실, 337~339쪽.

82 박정희, 1973, 위의 기념사.

83 강정인과 하상복은 이를 두고 반자유주의라고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박정희의 정치 사상을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로 명명한다.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곧잘 자유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반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한반도의 냉전자유주의가 가진 반공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비판을 통하여 박정희는 국가권력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나중에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수출주도의 성장드라이브를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이런 태도를 정치이념에서의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즉 발전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강력한 계급 억압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미봉을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는 달랐다. 박정희가 추구한 발전주의와 그가 구축한 ‘발전국가’는 탈자유주의적인 성장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⁸⁴

박정희는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예컨대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구분하고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체제가 ‘유신체제’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자유보다 큰 자유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⁵ 요컨대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회복하여야 할 자유나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곧 개인의 자유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은 ‘유신체제’ 시기에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⁸⁶

이런 차원에서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 혹은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최소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제3공화국 시기와 공개적 독재체제로 전환한 유신체제를 나누거나, 경제적 성장과 정

84 발전국가론에 대해서는 김윤태 편, 2017, 『발전국가』, 한울 참조.

85 박정희, 1973(1974, 10.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권, 312쪽;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재인용.

86 강정인·하상복, 2012, 위의 글.

치적 억압 혹은 독재를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을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야 새로운 차원에서 박정희체제를 보는 시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⁸⁷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이런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류야말로 자유주의적 이분법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혹은 반자유주의적) 이분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던 박정희체제의 의도 혹은 행로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박정희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는 누적되어 상당한 축적을 이루어왔다.⁸⁸ 연구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혹은 반공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재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왔다. 여기서는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론과 민족주의론 그리고 근대화론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고 연결되어 있었던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⁸⁹

먼저, 박정희의 민주주의론이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면서 혹은 1964년 ‘민정이양’을 전후하여 박정희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은 더욱

87 이광일, 2011,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메이데이.

88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현진·송호근, 1994,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전재호, 1997, 「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형아, 신명주 역, 2006,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전인권, 2006, 『박정희평전』, 이학사;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정성화 편, 2006,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허은, 2007, 「1960년대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담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황병주,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 앞 장에서 이승만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주로 1차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박정희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장에서 주로 2차자료를 활용하여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주 강조되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재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 박정희의 민주주의 재해석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냉전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론적 재해석을 제기하고 있었다. 각종 사람들의 집단은 모두 이런저런 이익집단을 통해 대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해의 다원론은, 미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곧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다원주의자들은 개별 이익집단들 사이의 영향력과 성취 사이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이익을 넘어선 사회의 일반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⁹⁰ 하지만 이런 냉전자유주의자들의 재해석이 박정희 혹은 그의 이론가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규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행정적 민주주의’ 혹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던 규정으로서,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수정 변형하고자 했던 것인데,⁹¹ 이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박정희의 민족주의론이다. 그가 채택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해석은,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차츰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쿠데타 직후 군정기에는 민족주의가 그다지 선호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의 참담한 현실과 아울러 그것을 배태한 ‘전통’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서구산 이데올로기 즉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가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90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91 강정인, 2011,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철학논집』 27집.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⁹² 또한 ‘조국근대화’(1963~1964) 슬로건은 민족주의(민족중흥)와 근대화(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결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고 공업화 및 도시화와 아울러 농촌사회의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급속하고 강렬하게 대두하자 사정은 갑자기 변화하였다.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가 만든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이처럼 ‘처음과 다음이 다른’ 갑작스런 것이었으나, 민족주의가 제공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세 번째, 근대화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요컨대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자신의 ‘혁명’ 혹은 근대화와 민주주의 제도를 조절하고 병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달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었다. 박정희는 또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는 거리를 두되 경제적 자유주의 곧 시장경제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는 지속시키는 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여기에서 서독의 질서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쉬이 간취할 수 있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정책 혹은 산업화 정책과 그에 바탕을 둔 ‘힘에 의한 반공(승공)정책’은 서독의 발전모델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⁹³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변에서 재현하는 것이 박정희에게는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서독의 발전모델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박정희가 시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해석이 조국근대화를 위한 사회의 효율화 이

92 이승만정권기의 강렬한 반일민족주의는 대개 이승만 개인의 감정과 필요에서 기인하는 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정희정권기의 민족주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건우, 2009,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93 노명환, 2011, 「냉전시대 박정희의 한국 산업화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사립』 38호.

데올로기와 결합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박정희 정권 후반기의 일이었다. 1960년대 후반 ‘3선개헌’을 옹호하는 논리로서는 아직까지 설득력을 갖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유신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돌입하면서 이런 ‘효율성 테제’가 급속하게 대두되었던 것인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곧 이 시기 민주주의는 명백히 반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진 것이었다.

박정희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기본가치에 대해 재해석을 가하고 집단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에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탈자유주의 전환’을 서서히 그러나 강렬하게 수행해나갔다. 이와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를 단원론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소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었다. 한편 ‘조국근대화’ 혹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었던바, 민족주의가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가 힘에 의한 반공정책과 연결됨으로써 단원론적 민주주의 규정과 민족주의를 동원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가 최종적으로 체제의 ‘효율성테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다.

V. 맺음말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

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 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 반공주의를 설정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에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단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이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이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정치이념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

다.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그들의 정치이념이 당시의 정치지형을 규정하고 있던 측면도 강했다. 그런 의미에서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이념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근래 자유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두고 ‘접두사 자유주의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주의의 긍정성을 새로운 대안이념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이르는 것이겠다.⁹⁴ ‘공동체적 자유주의’⁹⁵·‘급진적 자유주의’⁹⁶·‘사회적 자유주의’⁹⁷·‘진보적 자유주의’⁹⁸ 등을 들 수 있겠는데, 또 하나의 자유주의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자유주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94 최장집, 2011, 앞의 글.

95 박세일 편, 2008,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

96 윤평중, 2009, 『급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97 박동천, 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98 최태욱 엮음, 2011, 앞의 책.

참고문헌

- 박정희, 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 박정희,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5권, 대통령비서실.
- 우남실록편찬회, 1976, 『우남실록』.
- 이승만, 1952,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대한민국공보처.
- 이승만, 1956,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공보실.
- 강정인, 1997,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 권용립,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 김남두 편, 1993, 『재산권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 김명구, 2011, 『해위 윤보선』,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 김석수, 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돌베개.
- 김운태 편, 2017, 『발전국가』, 한울.
- 김학준, 2000,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형아, 신명주 역,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 남정옥 외, 2016, 『시간을 달리는 남자』, 백년동안.
- C. B. 백퍼슨, 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후마니타스.
- 민정국, 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 박동천, 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 박세일 편, 2006,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
-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후마니타스.
- 복거일, 2016,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북앤피플.
- 서중석,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송복 외, 2011,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영익, 1996,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 유영익 편, 2000, 『이승만연구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평중, 2009, 『급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 이근욱, 2012, 『냉전』,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2014,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 전인권, 2006, 『박정희평전』, 이학사.
- 정성화 편, 2006,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 조광 외, 2003, 『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 최상오 외,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최장집 외, 2017,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태욱 엮음, 201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해위학술연구원 엮음, 2015,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허동현, 2005, 『장면의 정치사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 황준성, 2011, 『질서자유주의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출판부.
-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 권현익, 이한중 역, 2013, 『또하나의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 민음사.
-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역,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 - 극단의 시대 1945 - 1991』, 역사비평사.
-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 김남섭 역, 2016, 『실패한 제국』, 아카넷.
-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 박소현 역, 2015, 『갈색의 세계사』(The Darker Nations), 뿌리와이파리.
- 앤서니 아블러스터(Anthony Arblaster),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 장미셸 카트르푸앵, 김수진 역, 2015, 『제국의 충돌』, 미래의 창.
- 존 루이스 개디스, 장철 · 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 존 스투어트 밀, 김형철 역, 1992, 『자유론』, 서광사.

- 질 망스롱(Gilles Manceron), 우무상 역, 2013, 『프랑스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 프랜시스 스톨너 손더스(Frances Stonor Saunders), 유광태 · 임채원 역, 2016, 『문화적 냉점 -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 강정인, 2011,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철학논집』 27집.
- 강정인 · 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1호.
- 강정인 · 하상복, 2013,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 · 환경 · 미래』 10호.
- 고정후, 1986,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109.
- 김진우, 2009,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 김도형, 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 - 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
- 김석근, 2011,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동양정치사상사』 10-1.
- 김수자, 2004,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 22.
-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수, 1995,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
- 노명환, 2011, 「냉전시대 박정희의 한국 산업화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사람』 38호.
- 노상균, 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7.
- 박만규, 1999, 「안창호 민족주의에서의 자유주의」, 『한국사학』 17.
-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4년 여름호.
- 박찬승, 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 선우현, 2015, 「일민주의 철학의 정립자, 이승만인가 안호상인가」, 『시대와 철학』 73호.
- 손호철, 2010,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기억과 전망』 22호.
- 양승태 · 전재호, 2007,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21집.

- 오영섭, 2012, 「1910-1920년대 『태평양잡지』에 나타난 이승만의 정치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 이근식, 2011,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이병수, 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 19-2.
- 이삼성, 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55호.
- 이평전, 2013, 「근대 자유주의의 문학적 수용양상 연구-신채호, 이광수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
- 임현진·송호근, 1994,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전재호, 1997, 「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재호, 2004, 「자강론과 자유주의-식민지초기(1910년-1920년대 초) 신지식층의 자유주의관」, 『정치사상연구』 10-2.
- 정미량, 2007,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학지광』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4집.
- 정용화, 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1.
- 주진오, 1996,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
- 채오병, 2012, 「제국의 사이클과 지역 정치문화-전간기 동아일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와역사』 94.
-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담론』 75.
-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하유식, 2000,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 『지역과 역사』 6호.
- 허은, 2007, 「1960년대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 허재훈, 2014, 「식민주의의 기초: 존 로크와 아메리카, 인디헤나의 수난사」, 『철학연구』 130집.

황경식, 2005,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철학연구』 71.
황병주,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毛利健三, 1978, 『自由貿易帝國主義: イギリス産業資本の世界展開』, 東京大學出
版會.

Delton, Jennifer A., 2002, *Making Minnesota Liberal: Civil Righ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ton, Jennifer A., 2009, *Racial Integration in Corporate America, 194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ton, Jennifer A., 2013, *Rethinking the 1950s: How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Made American Liber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Ryan, Alan, "Liberalism,"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 eds.,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ress.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윤해동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

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 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가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일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주제어: 냉전자유주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소유적 자유주의, 식민주의, 반식민주의, 이승만, 박정희, 질서자유주의

ABSTRACT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ost-liberal Turn in Korean Politics: Focusing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Yun Haedong

When discussing liberalism in Korea,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Combined with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world order, liberalism has often manifested certain imperialistic traits. This stems from classical liberalism, which advocated possessive individualism, the underlying colonialism of which combined with racism provided the background for the logic of “the civilizing mission.” Received by a non-Western society or a colony, liberalism not only functioned as an ideology of domination but in its encounter with anti-colonialism was sometimes incorporated into an ideology of resistance. Such paradoxical ambivalence, coming from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was an inevitable characteristic of colonial liberalism. The same can be said of Korea’s case.

In examining the liberal aspects of the political ideologies of Rhee

www.kci.go.kr

Syngman and Park Chung He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that were happening in the Cold War along with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rdoliberalism of West Germany. With the Korean War, the Cold War was rapidly militarized, but entered a stable phase in the 1960s as it became politicized. The militar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the Cold War were strongly connected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In conjunction with an intense anti-communism,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deeply affected the anti-communist liberalism upheld by Rhee Syngman while also helping to stabilize his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West German model of development based on ordoliberalism and a “policy of triumph over communism” through power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Park Chung Hee. It provided the source for Park’s relentless pursuit of economic growth under the flag of “homeland modernization.”

Although the Cold War liberalism of Rhee Syngman advocated liberal values, patriotism always took priority. Rhee put a great amount of faith in the liberal economic order, too. Contrarily, to Park Chung Hee, liberal individualism was essentially something that should defer to “the value of the greater freedom.” In what can be termed a post-liberal turn, Park’s regime was able to gain some latitude to evade the liberal regulations of the world system. Park also attempted to monistically redefine democracy, thereby mobilizing nationalism in pursuit of the modernization of Korea.

Keywords: cold war liberalism, post-liberal turn, possessional liberalism, colonialism, anti-colonialism, Rhee Syngman, Park Chung Hee, Ordoliberalism